

2023. 7. 24.(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7월 24일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무국 재무과

재무과장

권순기

02-2133-3211

지출팀장

김은아

02-2133-3227

담당자

김남호

02-2133-3233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서울시, 상반기 이자수입 527억원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

- 적극적 자금운용으로 상반기 예치율 97.6%, 수익률 4.06%로 '전국 최고 수준'
-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
- 지난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'역대 최고' 1,578억원 달성

-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리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이자수입 527억원을 달성했다. 전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얻은 성과다.
 - 작년에는 주요 세목 징수실적이 예산 대비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잔액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 고금리 금융환경에 적시성 있는 자금 관리·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극대화하여 일반회계 공공예금 '역대 최고' 이자수입액 1,578억원을 달성하였다.
- 3고(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) 현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시의 상반기 일반회계 평균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52.4%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상반기 이자수입 527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.
 - 시의 상반기 일반회계 평균 잔액 대비 이자수익률은 4.06%로, 한국은행이 밝힌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 3.43~3.83%에 비해 훨씬 높다.

□ 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‘약자와의 동행’을 위한 복지분야 세출 규모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,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이자수입 증대의 적기로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기예금과 기업MMDA* 상품에 전략적으로 예치(예치율 97.6%)하고 있다.

* 기업MMDA(Money Market Deposit Account)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을 말한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6조(재정자금의 통합운영) 규정 등에 근거하여 시금고 예금상품(정기예금, 기업MMDA, 공금예금)으로만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,
- 지난 4월에는 시중은행 및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금 관리·운용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환경에 대응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과 전문적인 자금 운용·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.
- 또한,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세입·세출 불균형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, 확보된 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에 예치하고 있다.

□ 특히 일반회계 10억이상 고액 지출건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, 회계거래 발생 시 계좌 잔액과 입출금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.

□ 또한, 시는 하반기에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요 세목인 재산세 및 관련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속적인 효율적 자금 관리·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일반회계 이자수입 예산액 1,111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□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“금리변동과 경제전망 등을 분석해 철저한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출예산의 안정적 집행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